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 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 통합심의
- 회의일시 : 2024년 7월 24일(수) 14: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권성택, 김신아, 박성혜, 박정아, 신보현, 우연, 이나리메, 이민희, 이봉규, 이효진, 정안나, 한지영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은 이전에 선정되어 발표되었던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작품을 대상으로 2차 제작지원을 시행함으로써 대표 레퍼토리 작품으로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에서의 공연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구 창작팩토리 사업을 포함하여 2008년에서 2023년에 이르는 역대 올해의신작 중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 이내에 공연이 예정된 연극·창작뮤지컬·무용·음악·창작오페라·전통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의 공연 발표 및 비수도권 소재 단체의 전국 단위 확산 공연 등에 대한 우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분야에 따른 지원규모는 최대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총 5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공모에 총 41건의 사업이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행정결격 없이 모든 신청사업이 심의대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심의는 통합 심의로 운영되었으며 연극·창작뮤지컬·무용·음악·창작오페라·전통예술 각 분야별 2명씩 총 12명의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사업에 대해 전수검토 및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과 차별성, 그리고 실행역량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창작의도가 뚜렷한지, 기존의 공연에서 객관적인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더 나아가 창작자나 출연진이 사업 계획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타깃관객의 설정 및 관객개발에 대한 계획이 명확한지의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2차 제작 시에 공연발표 장소 및 창작진의 변화 등 작품 보완 및 발전 방향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는지 등 예산 및 일정계획이 타당한지를 살폈습니다. 본 사업 이후 국내·국외에서의 공연 계획이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우수 창작 레퍼토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작품은 연극 분야 2건, 무용 분야 2건, 음악 분야 1건, 창작오페라 분야 1건, 전통예술 분야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연극 분야에서는 창작자의 개성을 유지하며 고유한 작품세계를 발전시킨 시의성 있는 작품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비가시적인 엑스트라의 통사적 연대기를 무대 위에 구현하며 연출·무대·작가·배우 각각의 작품 설계 전략을 정교하게 제시한 작품,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특정 인물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연출과 무대, 역사의식을 조화시키며 다양한 극적 장치로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무용 분야에서는 장르의 확장과 총체적인 요소의 결합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광대라는 친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중의적이며 양면적인 의미를 전달한 작품, 그리고 3차원의 극장 구조 안에서 무용수들의 뛰어난 역량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참신성을 보여준 작품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음악 분야에 선정된 작품은 오디오비주얼이라는 매개 안에서 작가 고유의 아이디어를 개성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음악·기술·미디어아트 영역을 아우르는 작품의 확장성 및 예술성이 뛰어났습니다. 창작오페라 분야에 선정된 작품은 인간에 내재한 속성을 음악과 적절히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긴장감 있는 리브레토와 힘 있는 음악, 그리고 실연자들의 능숙함이 돋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예술 분야에 선정된 작품은 음악과 무용의 유기적인 결합을 보여줌으로써 꼭두각시라는 소재가 지닌 다층적인 의미구조를 실험성과 현대성의 맥락에서 운용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선정된 7건의 작품은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을 통해 기 발표된 작품을 재 발굴하여 대표 레퍼토리화 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예술성과 창의성이 뛰어났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덕션의 구성이나 예산분배 등도 적정수준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작품의 경우 기존 프로덕션 대비 보완 및 개선점이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았으며 타깃관객을 설정하고 관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성이 다소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업의 취지에 큰 무리가 있는 작품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따라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 또한 예술성, 시의성, 참신성, 기획의 구체성 등이 뛰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삼 공연예술창작산실이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공연제작지원 사업이 예술현장과 함께 다년간에 걸쳐 다양한 수작을 배출해왔음을 확인하며, 올해의신작 기 선정작들이 새로운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관객을 만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함을 절실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선정된 7편의 작품들이 올해의신작에서 시작된 발걸음을 더 큰 무대 및 더 많은 관객으로 확장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성공적인 무대, 그리고 예술현장으로 파생될 더 큰 영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 심의위원 일동